



宗訓

- 1. 崇祖 精神의 高揚
- 2. 宗族 和睦의 勵行
-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 60 호

2009. 4. 27 (월)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종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 (02)400-2501 ~2502/FAX : (02)400-2505

개나리 진달래 겹겹이 수놓은 순천시 주암골 順天金門 後裔들 己丑年 春享大祭 奉行



순천김씨 중앙종친회(회장 鍾植)는 기축년 춘향대제를 4월 1일(음3월6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시조 묘역 동원재에서 중앙종친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종친회와 파종회에서 참가한 종친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는 明在 고문의 집례에 의하여 시조부군 신명계 犧牲을 올리는 강신례에 이어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예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초헌관에는 지평공파의 錫元 아헌관에는 양경공파의 東春 종헌관에는 전서공파의 炳學 축관에는 晉 종친으로 분정하여 봉행하였다.

그리고 항상 중앙종친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고 효우돈목을 봄소 실천하는 한화구름 회장 升淵 종친은 시조묘소와 제단에 獻花하였다.



2009년 己丑年 順天金氏 第24回 大學生 教養講座

◆ 목 적 : 순천김씨 자녀들로 하여금 보학교양강좌를 통하여 송조, 애종, 효친돈목,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4례를 공부함으로써 명문화벌의 자녀로서 긍지를 갖고 국가 사회에 봉사한다.

- ◆ 강좌일시 : 2009년 8월 5일 - 8월 7일(2박3일)
- ◆ 입소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동원재)
- ◆ 강 사 진 : 1) 종친(교수, 법관, 학자)
2) 외부(저명인사 초빙)
- ◆ 수강자격 : 순천김씨 남녀 대학생 및 동등학력 소지자
- ◆ 수강인원 : 40명
- ◆ 접수일자 : 2008년 7월 31일까지
- ◆ 접수방법 : 1) 개인(서면 혹은 전화 접수)
2) 단체(지역종친회 혹은 파종회)
- ◆ 입 소 자 : 추후 개별 통지함
1) 모든 경비와 소모품은 종친회에서 부담함
- ◆ 문의전화 : 02)400-2501, 2502 fax: 02)400-2505

◆ 시간표

날짜 시간	8월 5일(수)	8월 6일(목)	8월 7일(금)
오전 8시~10시		- 기상, 아침식사 - 특강:순천대학교수 (崇祖精神) 감상문 기념촬영	
오전 10시10분~12시		김동성님 (四禮) 김규일 교장님	
		- 점심식사 -	
오후 4시	주관 : 김승연 교수(청년간사)	특강 : 전 단국대학교 대학원장 김행업교수	
5시	입소식 (회장님, 간사장) 시조묘참배 및 사진촬영	김광연 (세상살이 비결)	
6시	영당참배		
		- 저녁식사 -	
7시	종중회의		
8시	특강	언론인;김수연	(추후변경됨)
9시	제24회 학생회 총회		
밤10시		- 취 침 -	

2009년 5월 1일

順天金氏中央宗親會

기적길 수 없다, 남기고 가야 한다.



근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층과 재벌기업의 총수들이 자신들이 모은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이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중에는 진실성 없이 오히려, 사람들의 불신과 지탄을 받는 것을 근간에 보기도 한다.

지키지 못할 헛된 말과 거짓말로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속여서 얻는 이익은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는 일일 뿐 오래도록 나쁜 평판과 역사의 삼판을 받게 된다. 또 자신의 거짓된 뜻과 달리 하늘과 세상이 실제로 말을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 朴趾源(박지원)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소설가이다. 그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으며 많은 글을 남겼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며 사회 경제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박지원은 문학을 통해 그가 살던 사회의 허위나 위선을 날카롭게 꼬집어 내고 비판했다. 그의 시문을 모은 것이 燕岩文集(연암문집)이다. 연암문집에는 지금의 상황과도 무척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온다.

평안도 의주땅에 상인이 한명 있었다. 그는 중국을 왕래하면서 북경에 있는 중국인 豪商(호상)과 친분을 두텁게 맺고 거래를 했다. 그는 중국상인에게 신용을 쌓아 많은 돈을 빌려 쓰고 큰돈을 벌고 있었다. 어느 해 그는 빌린 돈을 반환할 기일이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려고 꾀를 생각했다. 그는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북경으로 가는 인편에 부탁하기를 자기는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났을뿐더러 재산도 탕진했다는 거짓 전갈을 부탁했다. 이러한 속임수를 그대로 믿은 북경 상인은 자기 돈을 잃었다는 생각은 않고 그 사람이 죽었음을 가엽게 여겼다. 그래서 눈물지으면서 애절한 祭文(제문)을 짓고 돈을 조의금으로 주어 그 인편에 보냈다. 심부름 갔던 이가 중국 땅에서 돌아와 보니 그 나쁜 상인은 자기가 말한대로 그 동안에 큰 병을 앓다가 정말 죽어있었다. 병을 고치느라고 있는 돈을 모두 탕진한 채 죽어버렸던 것이다. 북경상인이 보낸 조의금은 장례비용으로 쓰였고 그 제문도 그대로 쓰여졌다. 200여년전 이땅에 살던 선각자 박지원은 이 시대의 거짓과 위선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이렇게 꼭 들어맞는 이야기를 남겼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국가 사회 지도층의 명예와, 권력, 재벌들의 재산은 모두 대다수 국민들의 힘을 밀받침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잠시 빌린것과 다름없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릴 수 없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는 스스로 잘못과 부끄러운 허물을 씻기위해 공개적으로 한 말은 하늘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늘이 알아서 준엄한 벌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곳 천벌을 뜻함이다.

누구든지 쓰고 남기고 갈 수 있어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재물이다. 재물의 무상함과 자신이 세상에 되돌린다는 말을 할때의 간절함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거짓과 위선의 함정에 발을 딛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진실성 있는 헌납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더욱 밝은 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상임 부회장 김 상 용

조상 임들의 개사초를 마치고



유교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崇祖 理念이 남다른 나라이다. 그간 우리는 6.25 이후 너무도 가난하여 조상을 돌볼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것이 우리 서민들의 限 맺힌 哀 歡이었다. 그러던 것이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먹고 살만 해지니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간 황폐되고 붕괴된 조상 묘소 관리와 미화에 온 氏族이 합심함은 물론 화려한 납골당까지 생겨났다. 풍치 좋다고 생각하는 산에는 틀림없이 화려한 비석과 아름다운 花樹로 단장 되어 개선된 우리 생활상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순천김씨 海南 落鄉祖는 26世祖 담양도호부사 남은공 孝자 友에서 分派되고 黃山面은 32世祖 韓자 할아버지를 위시로 10대 손이 번창하여 춘정리와 연당리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산업 사회의 時流에 밀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이제 불과 20여호가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祖上님들은 32세조와 36, 37세조는 연당리 德隱齋에 配享하고 33세조 時자 敬, 34세 美자 直, 35세 司僕侍正 潤자 業, 38세 鼎자 成, 할아버지는 춘정리 은덕제에 배향하였으나 오랜 세월동안 풍우에 시달려 석물이 낡고 잔디가 훼손되어 호암산 등을 타고 앉은 명당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어서 늘 걱정을 해오다가 금번 한식을 기하여 用衛改莎草를 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묘소는 4각 돌레석으로 단장하여 祭床을 교체하고 비석은 상용 부회장이 기증한 7자 대형 비석을 그대로 정립하였다. 물론 석제사에서 모든 것 책임지고 완수키로 하였으나 기술적 미비와 업무과다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 제관 20여명이 같이 합심하여 개사초를 하고 보니 너무 늦어 祭禮행사를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부득이 單拜로 禮畢하고 보니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행사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잡다한 大小事는 相南 동생이 東奔西走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山神祭와 改莎草告 由祭는 한경 族姪 주관하에 20여 제관들이 힘을 합하여 밤 8시에 무난히 마무리 하였다. 다만 미안한 것은 내가 몸이 불편하여 업무 총괄을 구두 지시하는데에만 머물고 말았다.

이제 一連으로 된 明堂地에 묘소를 美化하고 석물을 다시 세우고 보니 너무도 웅장하고 화려하여 후손으로서의 보람있는 일을 하였다는 뿌듯함이 앞을 가린다. 특히 중앙종친회 相容 부회장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아침부터 참석하여 모처럼 화기에애한 문중 화목을 유도하고 젊은이들에게 조상 숭배 사상과 효의 근원을 일깨워 주워 너무도 고마웠다. 끝으로 이번 일을 무사히 마무리하도록 뒷바라지 하고 제물과 식사 준비 등에 전력한 門任 鍾玉 외 집안 제수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 4. 15

42세 讓景公 20代孫 春亭 金 相 默 謹모



芳春書院春享祭

지난 4월 12日(陰3월7일)에 海南郡 溪谷面 芳春里 所在 芳春書院에서 襄景公, 節齊公, 北渚公을 비롯한 南隱公과 進士公 等 五賢의 沒을 기리는 春享祭를 경건하게 치렀다.

宋鐘默 院長등 任員들과 初獻 尹泳烽(강진), 亞獻 朴榮暉(나주), 終獻 李昌珉(해남)을 필두로 執禮 節次에 따라 시종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엄수 되었으며 특히 이날 郡守, 道義員, 文化觀光課長, 面長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祭香이 되었다.

別有司 金正熙 謹모



<http://www.schkim.co.kr>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사랑하면 사랑받고 미워하면 미움 받는다” 이처럼 하늘의 법은 쉽고 간단 명료하여 알기는 삼척동자라도 알지만 행하기는 팔십노인도 어려운 것이 하늘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의 법이 곧 道고 道는 진리이며 진리의 작용이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를 깨달아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길ियो 진리이며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아니까 믿고 믿으니까 행한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법을 알고 믿어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의 법이 곧 진리이며 생명인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밤하늘을 붉게 비추고 있는 십자가가 그토록 많이 생겨나고 부처님 믿는 사람이 그토록 많아도 사회가 정화되지 않고 더 악화 되는 것은 하늘의 법을 믿는다면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피나는 정진 속에 하느님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 하느님과 나는 하나다”임을 깨닫고 하느님으로 살아 하느님이 되신 분이다. 석가모니께서는 내 안에 불성이 있음을 깨닫고 불성을 드러내 부처가 되신 분이다. 이처럼 내 안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을 삶을 통해 드러냄이 옳은 믿음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미워하며 살아왔는가? 미워하면 미움받는다 하늘의 법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려서 삶을 살았는지 깊이 참회할 문제다. 죽음 앞에 물거품처럼 허망한 인생을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내 생명을 존엄한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만들어 나감이 삶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 받듯이 내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랑받자면 생명의 존엄성을 드러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사랑하면 사랑 받는다 하늘의 법을 행함이다.

하늘의 법인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인류의 존경을 받은 분이 있으니 한분은 교황 바오로Ⅱ세요 또 한분은 우리나라 스테파노 김수환 추기경이다. 교황 바오로Ⅱ세는 카톨릭 교회의 과오를 인정

하고 사죄한 분이시다. 그가 인정한 과오의 내용을 보면, 십자군, 이단 심문 프로테스탄트와의 분열 원인이 되었던 고위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 미개지역 선교 활동 시 미개인탄압, 갈릴레이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 자연과학탄압,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따른 600만명 대학살에 침묵한 점 등이다. 얼마나 용기있는 위대한 참회의 사죄인가?

진리를 드러냄이 곧 하느님을 드러냄을 깨닫고 허위로 가려진 장막을 걷어 냈으니 하느님은 그에게 인류를 통해 찬사를 보냈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은 TV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겨 주셨다. 영명축일에 신자들이 봉투를 내놓으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두툼한 봉투에 눈길이 가고 손이 나도 모르게 가더라고, 또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다. 피정 때 내 강론을 듣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노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그 분들보다 믿음이 약한 내가 한없이 작아짐을 느낄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참회했노라고, 이 처럼 솔직하고 거짓 없는 심경을 고백하는 그분의 마음은 참으로 진실 그 자체다. 거짓 없음이 참이 아니던가!

참을 드러냄이 곧 하느님을 드러냄이니 하느님은 온 국민을 통해 그분의 가시는 길을 빛내 드렸다. 이 처럼 하늘의 법을 밝히고 행하는 자에게 하느님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다.

종교는 삶의 체험에서 생겨난 것이고 모든 경전은 종교로부터 나온 것임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때 받아들여야 하는 다른 하나는 삶의 상황이 바뀌면 체험이 바뀌고, 그에 따라 경전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에 의해 신격화 된 것을 우상이라 하고 우상을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인바. 이는 잘못된 근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첫 번째로 금하는 것이다. 성경이나 불경에도 하늘의 법에 위배되는 허무맹랑한 것들이 아직도 수정되지 않은채 진리인양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음을 본다. 언젠가는 교황 바오로 Ⅱ세 같은 성자가 나타나셔서 바로 잡아 주실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는다.

사랑은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완성됨이 사랑의 법칙이다.

하늘의 법을 믿는 자가 하느님을 믿는 자이며 하늘의 법을 행하는 자가 하느님 자녀인 것이니 이가 곧 사람의 자녀에서 하느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인 것이다.

釜山 宗親會 第29次 定期總會



부산 종친회(회장 仁燮)는 2009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강변회관에서 회원들과 원거리에서 참석한 내빈등 8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 되었다. 이날 중앙 종친회에서 내려간 鳳煥 간사장을 비롯하여 영남종친회장 東燾, 안동종친회장 東春, 부회장 進, 총무 允환, 감사 東愷 등이 참석하여 축사와 덕담을 나

누며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임원개선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행사를 마쳤다.

⊗ 任員 改選

- ▶ 회장 : 仁燮 (유임), ▶ 수석부회장 : 聲國 (유임)
- ▶ 부회장 : 東玉, 淵守, ▶ 총무 : 丙模, ▶ 감사 : 允熙

安東宗親會 정기총회

지난 4월 11일(토요일)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국담 선조님 제실에서 2009년 안동종친회 정기총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종식(중앙종친회) 회장님의 축하화환이 좌우에 배치된 가운데 식순에 따라 봉환(중앙종친) 간사장의 사회로 개식과 더불어 묵념 동훈 회장(안동종친) 인사말에 이어 내빈 소개가 있었다. 서울에서 창연(중앙종친회) 고문, 인섭(부산종친회) 회장, 동훈(영남종친회) 회장, 석연(문경종친회) 회장, 종용(중앙종친회) 부회장, 도연 동오 동석(전 문경종친회) 회장, 기연 동균(전 영남종친회) 회장, 석호 동연 종친 등 이외에도 안동종친회 철우 전 회장을 비롯하여 원근 종친 100여 명이 함께 자리하여 온종일 화기애애한 가운데 문중의 대소사를 논의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2009 4 1

참의공조 묘역 반환 건

이날 건강상 부득이 참석치 못한 수연(참의공종회장)의 뜻에 따라 봉환 종친이 지금까지의 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 종종 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입향조묘역반환추진위원장』 도연 종친의 입장 표명 및 경과 설명, 동석 동오 동훈 종친 등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였고, 인섭 석호(동영) 동균 종친 등이 각각 의견들을 내면서 토론의 중심이 된 가운데 향후 대책에 모두 중점이 모아졌다.

- 묘소반환은 당분간 어렵다는 결론(도청이전 확정발표)
- 옆에 딸린 입야 약 3천 800여평의 보존 대책 논의
- 수연(참의공과종회장) 추진위원장(도연) 한철(종손) 등 종종 원로와 회동하여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지만 의견 일치보았다.



2009 4 1

사용공 『휘수한』 묘소 새단장

이 산소는 구담 입향조 참의공(휘유온)의 대손으로 지난 10여년 전 전문 도굴꾼들에 의해 폐허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오던 것을 동성 봉환 등이 구담에 거주하는 종친들로부터 230만원의 성금을 모아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였다. 총회를 마치고 바로 현지에서 엄숙하게 고유제를 올렸다. 초현관(창연), 아현관(병환), 종현관(동완) 등 참석한 모든 종친들이 각자 술잔을 올리면서 죄송함을 아뢰는 자리가 됐다.

지금의 구담 동편 취담정 자리에 침류정(정자)를 세우고 임진왜란 때 불타기까지 농암(이현보) 안동(장욱) 선생 등. 사문이 남겨있고, 영가지에도 기록이 남아 있는 아주 훌륭한 조상님이시다.

성금내역

- ▶ 동완 100만원, ▶ 창연 40만원, ▶ 동성 20만원, ▶ 진 20만원,
- ▶ 봉태 10만원, ▶ 봉환 10만원, ▶ 윤환 10만원, ▶ 동출 10만원,
- ▶ 동영 10만원, ▶ 종삼 5만원, ▶ 동근 4만원

有用의 用과 無用의 用



有用의 用은 알지만 無用의 用은 알지 못한다.

莊子(BC 365-290)의 이름은 周이며 戰國時代 宋나라로 老子思想을 繼承했다.

莊子의 말은 逆說的인 表現이 많다. 그 原文은 이렇다

知有用之用而莫知無用之用.

莊子 內篇人間世에 나오는 有名한 말이다.

莊子에 依하면 用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有用之用이요, 또 하나는 無用之用이다. 세상 사람들은 當장 쓸데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쓸데없는 것이 어떤 경우에 크게 必要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有用한 것은 當장 有用하다. 밥이니 옷이니 집에서 모두가 우리의 衣食住에 없어서는 안되는 有用之物이다.

그러나 哲學을 工夫한다든지 小說을 읽는다든지 西洋의 美術史를 알고 東洋의 古典을 研究한다든가 하는 일은 우리의 生活에 當장 有用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無用한 것이다. 우파니샤드(Upanisad)의 古典 호머(homer)의 극시, 元曉의 佛典, 聖經의 詩篇, 그런 것은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實用主義의 見地에서 본다면 그런 것은 다 無用之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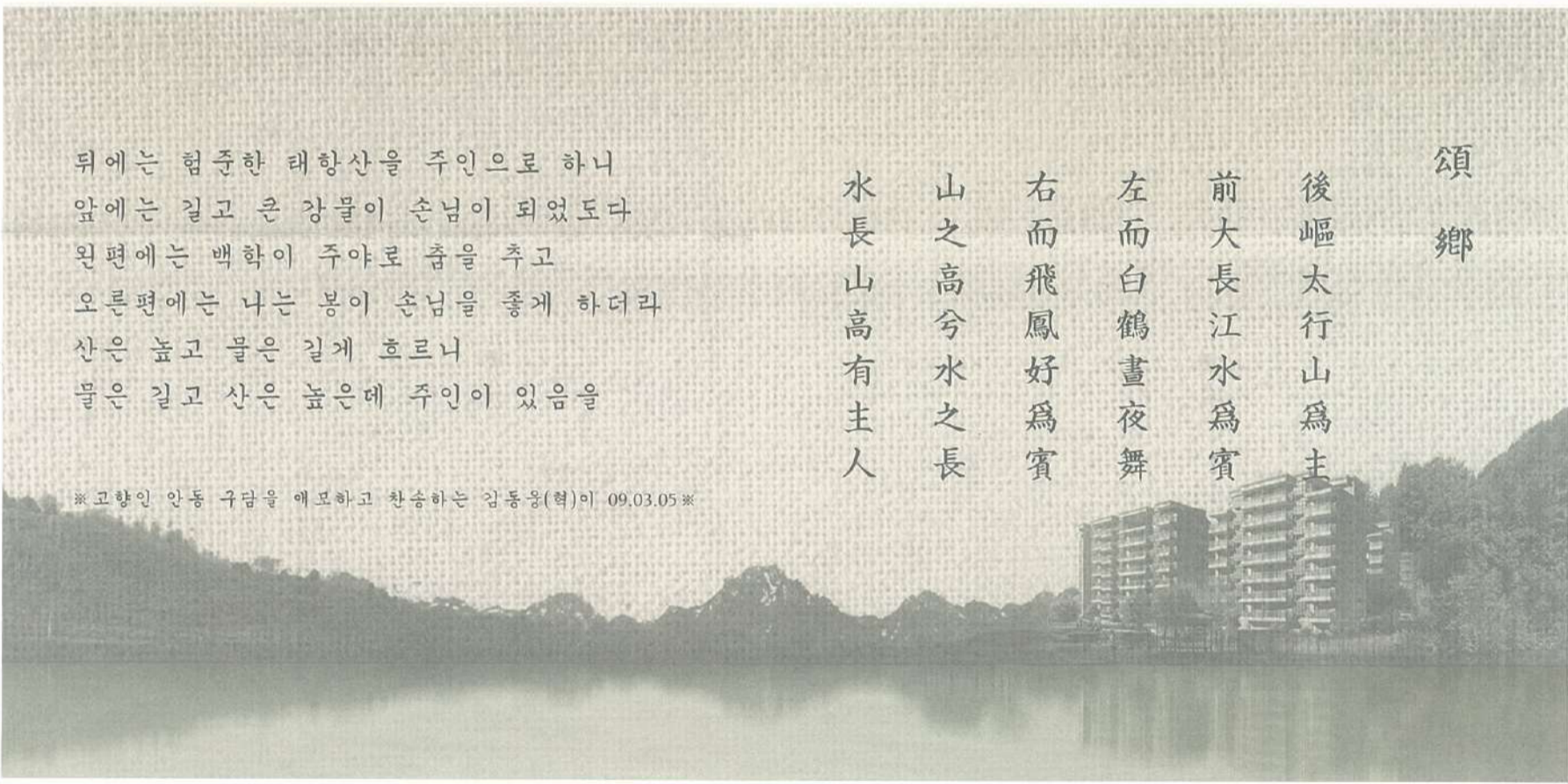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읽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영혼이 살찌고 人格이 深化된다. 이러한 精神的 財產은 別로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크게 쓸모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對하고 事物을 處理하고 人生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精神的 財產은 크게 도움이 된다.

일은 公正하게 處理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自己의 任務와 職責을 올바로 遂行해 나갈 때 그것은 偉大한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도움이 된다.

우리는 유용지용만 알고 무용지용을 모르는 近視眼의 淺薄한 人生觀이나 價値觀을 가져서는 안된다.

인생을 大所高處에서 멀리 내다보는 遠大한 눈과 마음이 필요하다.

宗末 金鍾龍



뒤에는 험준한 태항산을 주인으로 하니
앞에는 길고 큰 강물이 손님이 되었도다
왼편에는 백학이 주야로 춤을 추고
오른편에는 나는 봉이 손님을 좋게 하더라
산은 높고 물은 길게 흐르니
물은 길고 산은 높는데 주인이 있음을

頌
鄉
後 嶽 太 行 山 爲 主
前 大 長 江 水 爲 賓
左 而 白 鶴 晝 夜 舞
右 而 飛 鳳 好 爲 賓
山 之 高 兮 水 之 長
水 長 山 高 有 主 人

※고향인 안동 구암을 애모하고 찬송하는 김동웅(학)이 09.03.05※

선조(先祖) 한분 새로 찾음

우리는 이제까지 여산군(麗山君) 휘 유정(惟精)공께서 두 형제분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희(漢熙)종친께서 금산파(錦山派)의 세보에서 여산군의 계자(季子)가 되시는 휘 을귀(乙貴)공을 찾아내어 왕조실록의 공에 관한 기록까지 알려왔으니 반가운 일이 아닌가. 공의 생년은 알 수 없고 태종 5년(1405) 2월 12일에 졸하셨는데 묘는 실전이고, 배위는 청주한씨로 서원군(西原君) 방신(方信)의 따님이시다.

자녀는 무남독녀 한분이시니 상장군(上將軍) 이공효(李公孝)에게 출가하셨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공 태조(太祖)의 장수시절부터 도왔으며 태조 1년 10월에 태조를 도운 공로로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고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또는 우도수군도절제사(右道水軍都節制

使),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등의 벼슬을 지내시다 졸하시니 조정의 조회를 3일동안 정지하고 부의(賻儀)로 쌀과 콩 아울러 50석과 종이 100질을 보냈다고 하였다.

후계(後系)가 무후이시지만 공신조상님을 찾게 되었음은 반가운 일이며 이와 같이 조상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한희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순천의 성황사

성황(城隍)신앙은 명칭의 글자 그대로 어느 한 지역을 수호하고 저 하는 신앙의 일종으로 중국의 6조시대부터 있어왔고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 때에 번성하였다 하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초반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여 점차로 각 고을마다 성황사(城隍祠)를 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 성황사에는 그 지역을 수호하는데 크게 공헌한 실존 인물을 신격화하여 성황신으로 받들었다고 한다.

순천(順天)의 성황사에서서는 우리 시조부군이신 김총장군(金摠將軍)을 성황신으로 받들었으니 공께서는 용감하고 지모가 뛰어나 시어 그 옛날 여(麗)·순(順)지방에서 방수군을 이끌고 흉악무도한 적도(賊徒)들을 퇴치하고 백성들에게 덕을 베푸시어 백성들이 잘 따랐었고, 공 사후에는 공의 초상을 그리어 진례산(進禮山)에 모시고 추앙하였다하며 후손 휘 성해(性海) 공이 쓴 『평양군 영정 이안기』에 보면 고려 태조가 공의 유덕을 숭봉하여 일사(祠)를 짓고 "안관사(安官祠)라고 사액하였다고 하였다. (...高麗太祖建國初崇奉其遺德...賜額以安官...) 이와 같이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고려의 태조(太祖)도 숭봉하였으며 안관사에서 추앙받던 공을 성황신으로 받들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순천에는 어느 시기에 성황사를 두게 되었을까. 먼저 고려에 이 신앙이 들어온 시기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순천 향교와 군현제의"(郡縣祭儀)라는 팜플릿에 보면 고려사에서 인용된 기록으로 996년 고려 현종(顯宗)의 생부인 안종(安宗)이 유언으로 "사후에 현의 성황당 남쪽 귀용동에 장사 지내되 반드시 엮어 물어라"라는 말이 있으니 고려의 성황사는 늦어도 성종(961~997)이 전에 설치되기 시작되었으리라. 고려에서는 고을마다 성황사를 두게 하였으니 성황신앙을 중요시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순천 지방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왕래가 빈번하였었고 외구(外寇)의 침탈이 심하였으니 지역 수호를 위한 성황사에 관심도 많았을 터이니 다른 지역보다도 일찌감치 성황사를 두게 되었을 것이다. 늦어도 900년대 성황당을 세우고 제의 행사도 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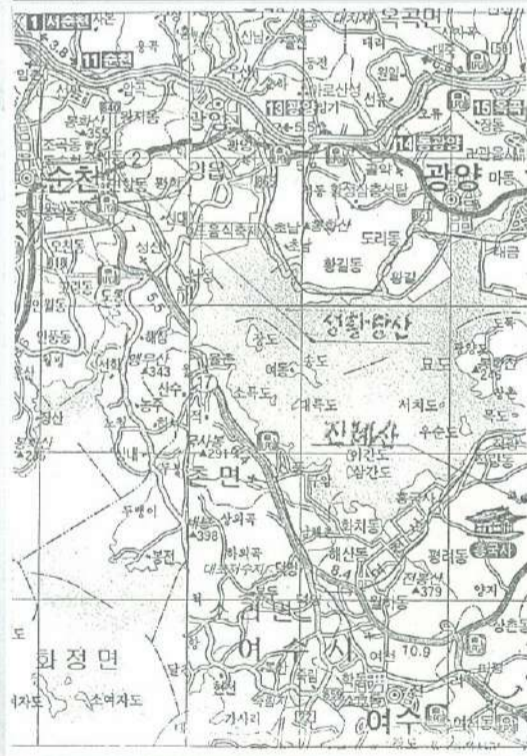
그러면 순천의 성황사는 당초에 어느 곳에 세웠을까. 성황사는 제의나 관리 등 문제로 치소(治所)에서 가깝고 한가진 곳에 있어야 하는데 치소에서 73리나 떨어진 여수 진례산의 성황사는 아니겠고..... 오늘날 순천시 생목동에 자리한 봉화산을 전에는 성황당산이라 하였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 곳에 성황당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골짜기를 당골(堂谷)이라고도 한다. 순천대학교의崔교수님에 의하면 그 곳에서 옛날 기와파편과 토기조각등이 흩어져 있음을 볼 때 성황사 유적지라는 심증은 가나 아직 발굴 조사가 안 되어 확인 할 수가 없었다고 하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음에 이야기 되는 봉수대 이야기는 그곳이 당초의 성황사 터였음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제 『동국여지승람』이나 향유(鄉儒) 조현범이 쓴 『강남악부(江南樂府)』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수의 진례산 성황사의 사연은 어떠한가, 조선조 세종(1418~1450)대에 우리나라 국방상 요충지 5개 처인 경흥(慶興), 강계(江界), 의주(義州), 동래(東萊), 순천(順天) 등에 봉수대(烽燧臺)를 설치하게 되었었다. 그 봉수대 역시 치소(治所)에서 가까워야 했고, 높은 산지에다 설치해야 하니 성황당산(봉화산)이 가장 적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봉화대가 있는 곳에서는 산신제 등 일체의 제사 행위는 엄금하게 되었었다. 그러하니 그 곳에 성황사가 있었다면 어찌해야 했겠는가. 봉수대의 설치에 국방상 현실적 문제이니 성황사를 타처로 이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때로 말하면 여수도 현으로 독립(충정황 2년)되어 자주치세였고 따라서 여수의 관과 민이 들고 일어나 진례산의 안관사 자리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조선조 초(世宗代)에 진례산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에 이어 근 1000년을 유지하며 춘추로 관에서의 제의도 이어졌을 것이다. 여기서 조선 후기에 그 고장 학자 조현범(趙顯範)이 진례산의 성황사를 바라보며 쓴 찬시 한편을 쉽게하여 적어본다.

"김총 인가별감은 훌륭한하였지, 살아서 순천의 군장(君長)은 아니었지만 죽어서는 성황신이 되었다네. 그의 음덕은 후세에까지 전해져 대대로 많은 문·무현신이 나왔지. 그대들은 아니 보았는가 저 높고 무너지지 않는 진례산(성황사)를, 지금도 봄·가을 제사를 지내다오."(金別駕英雄人生不得君平陽 死則爲城隍神...)

이 한편의 시를 통해서도 공이 얼마나 훌륭한하였는지를 알만하지

世	上系	서기	지역
1	摠 (신라중성인가별감 성황신, 배 강씨) 擬 (견훤분격 순절)	850	김총장군 신라
2	裕 (진성여왕시 정변장군) 彊	875	진례산 (주민추왕)
3	백운산은거 선독서 慶衍 慶欽	900	궁예 왕건
4	입산은거 선시부 巨 曠 旭 (입산은거)	925	안관사
5	身潤 心潤 性潤 尙潤 (산중은거)	950	고려
6	선시부 倫鈞 倫常 (산중은거 도덕탁관)	975	안중유언
7	현종남하 호종 悅 愼 恒 (은거 산중)	1000	성황사 성황당산 (봉화산)
8	敏彦 敏道 敏徵 (시거 산외)	1025	
13	希高 (이자점난) 希哲 (시 순절)	1175	무신정권
14	平 (박학다식 추밀원사) 良	1200	
15	孝儒 (좌습유 순절) 孝德 孝淑	1225	
21	陞 惟精	1375	조선
22	宗漢 宗瑞 宗興 乙財 承靈	1400	봉수대 설치
		1425	진례산으로 이전
		1450	
		1475	
		1750	장남악부 시기
		1800	
		1825	
		1850	
		1875	
		1900	철 폐 (영정(안) (매정))
		1925	



않은가.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게 한다. 경술년(1910)에 우리나라 국권은 치욕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고 이 성황사도 문을 닫게 되자 임실(任實)지방의 후손들이 갑인년(1914) 봄 그곳에 모셨던 공의 영정을 공의 분암인 동원재로 이안했다가 영당을 창건하고 봉안하였으며 매년 우리 문중에서 제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영정은 현재 전라남도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도와 우리 문중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순천시와 우리 문중에서 순천의 성황사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 지난 날의 여·순지방 성황사의 내력을 약술해 보았다. 우리는 시조부군께서 그 지방의 수호를 위해 얼마나 크게 공헌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며 깊이 존모해야 할 것이다.

(※ 위 표는 일부 학계에서 우리의 견해와는 달리 순천의 성황사는 순천김씨네 권세로 세워졌다는 설이 있고 시조 부군께서 견훤 또는 궁예의 인가별감이셨다는 설이 있어 참고가 될까하여 작성한 연표이다.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9년 2월 1일부터 ~ 4월 30일까지

부회장

- 1. 김종용 2009. 2. 2 대구광역시 남구
- 2. 김대영 2009. 4. 3 경상북도 문경시

대의원

- 1. 김석원 2009. 2. 17 전라남도 담양군
- 2. 김현국 2009.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사

- 1. 김영규 2009. 2. 26 경기도 안산시

고문

- 1. 김명규 2009. 2. 24 울산광역시 남구
- 2. 김채원 2009. 3. 16 경기도 남양주시

의원

- 1. 김규장 2009. 1.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 2. 김성남 2009. 1. 30 전라북도 익산시
- 3. 김용환 2009. 2. 18 강원도 원주시
- 4. 김상심 2009. 2. 18 경기도 고양시
- 5. 김세환 2009. 2. 17 충청남도 보령시
- 6. 김길원 2009. 2. 18 광주광역시 동구
- 7. 김길연 2009. 2. 18 부산광역시 동구
- 8. 김목희 2009. 2.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 9. 김동운 2009. 2. 18 경상북도 문경시
- 10. 김득수 2009. 2. 19 대구광역시 북구
- 11. 김세희 2009. 2.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 12. 김병수 2009. 2. 19 전라남도 구례군
- 13. 김두연 2009. 2. 18 경상북도 상주
- 14. 김정현 2009. 2.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 15. 김장희 2009. 2. 20 전라북도 전주시
- 16. 김동석 2009. 2. 23 경기도 김포시
- 17. 김동필 2009. 2.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 18. 김기수 2009. 2. 24 경기도 부천시

- 19. 김태연 2009. 2. 24 충청북도 청주시
- 20. 김규식 2009. 2. 24 충청남도 연기군
- 21. 김광재 2009. 2. 23 부산광역시 진구
- 22. 김영환 2009. 2. 18
- 23. 김갑균 2009. 2. 23 전라북도 익산시
- 24. 김종식 2009. 2. 24 경기도 남양주시
- 25. 김천환 2009. 2. 24 대구광역시 북구
- 26. 김봉택 2009. 2. 24 경상남도 양산시
- 27. 김종호 2009. 2. 26 강원도 동해시
- 28. 김정학 2009. 2. 26 부산광역시 진구
- 29. 김무연 2009. 2. 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30. 김동호 2009. 2.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 31. 김상천 2009. 2. 27 경기도 파주시
- 32. 김준섭 2009. 2.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 33. 김해용 2009. 2. 27 대전광역시 서구
- 34. 김종희 2009. 2. 27 광주광역시 북구
- 35. 김영조 2009. 3. 2 광주광역시 서구
- 36. 김동용 2009. 3. 4 경상북도 경산시
- 37. 김동한 2009. 3. 5 경기도 용인시
- 38. 김태연 2009. 3. 5 경기도 포곡
- 39. 김현남 2009. 3. 4 전라남도 고흥군
- 40. 김진웅 2009. 3. 10 충청남도 대전시
- 41. 김철환 2009. 3. 11 인천광역시 강화군
- 42. 김창주 2009. 3. 12 경기도 평택시
- 43. 김영철 2009. 3. 16 충청북도 괴산군
- 44. 김동성 2009. 3.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 45. 김원종 2009. 3.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 46. 김용석 2009. 3. 20 경상북도 의성군
- 47. 김기석 2009. 3. 23 전라남도 담양군
- 48. 김영태 2009. 3. 23 경상북도 구미시
- 49. 김홍연 2009. 3. 24 울산광역시 중구
- 50. 김중기 2009. 3. 25 경기도 포천군
- 51. 김준원 2009. 3. 25 광주광역시 동구
- 52. 김수호 2009. 3.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 53. 김봉희 2009. 4. 3 전라남도 해남군
- 54. 김수목 2009. 4. 10 경기도 군포시
- 55. 김완수 2009. 4.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 56. 김현만 2009. 4.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 57. 김지일 2009. 4. 21 경기도 안산시

무명인

- 1. 2009년 2월 20일 농협/운산농협
- 2. 2009년 3월 12일 봉화농협/농협
- 3. 2009년 3월 23일 농협/이천관고
- 4. 2009년 3월 23일 농협/기린농협
- 5. 2009년 4월 3일 농협/오릉역지점

존향대제 헌성금

- 김병석(담양종친회) 100,000원
- 김병학(경기이천종친회) 100,000원
- 김상묵(해남황산종친회) 100,000원
- 김인섭(부산종친회) 100,000원
- 김진(안동종친회) 100,000원
- 김창연(서울) 100,000원



Great Challenge

위대한 도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